

올 수능 국어·수학 가형 어려웠고 영어 쉬웠다

2021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

영어 1등급 비율 2배 가까이 늘어 역대급 난도 국어 정시 당락 가를 뜻 “코로나19 여파 학력 격차” 분석도

올해 정시에서는 문·이과 모두 국어가 당락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이과생은 수학 변별력도 지난해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3일 치러진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채점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수험생들에게는 23일 학교나 시험 지구 교육청을 통해 성적통지표가 배부된다.

올해 치러진 수능은 지난해보다 국어와 수학 가형이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 나형과 영어는 작년과 견줘 평이한 것으로 분석됐다.

영역별 표준점수 최고점(만점)을 보면 국어영역은 144점, 이공계열이 많이 선택하는 수학 가형은 137점, 인문 사회계열 학생이 주로 치는 수학 나형도 137점이었다. 지난해 수능의 경우 국어영역은 140점, 수학 가형은 134점, 수학 나형은 149점이었다.

표준점수는 수험생의 원점수가 평균 성적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 나타내는 점수다. 시험이 어려워 평균이 낮으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높아지고, 시험이 쉬워 평균이 높으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낮아진다.

2021학년도 수능은 전년도보다 국어 영역과 수학 가형은 어려웠고, 수학 나형은 쉬웠다 뜻이다.

특히 입시 전문가들이 애초 평이하게 출제됐던 국어영역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현 수능 체제가

도입된 2005년 이래 2019학년도(150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드러나 수험생들에게는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영역별 1등급 커트라인(컷)은 국어영역은 131점, 수학 가형은 130점, 수학 나형은 131점이다.

지난해 국어영역 1등급 컷이 131점, 수학 가형은 128점, 수학 나형은 135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국어는 똑같고 수학 가형은 2점 올랐지만, 수학 나형은 4점 떨어졌다.

표준점수 최고점자(만점자) 비율의 경우 국어영역은 0.04%로 작년(0.16%)보다 쪼그라들었다.

수학 가형은 0.70%, 나형은 0.53%로 지난해 수능(수학 가형 0.58%, 나형 0.21%)과 견줘 각각 상승했다.

절대평가여서 등급만 나오는 영어영역은 1등급 학생 비율이 12.66%(5만3053명)로 나타났다. 2020학년도 수능(7.43%)보다 확대된 것으로, 수능 영어에 절대평가가 도입된 이래 1등급 비율이 최고였다.

이에 따라 입시업계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중위권이 줄어드는 등 수험생 간 학력 격차가 나타났다는 분석도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하늘교육대표는 “수학 영역의 표준점수 만점자 비율 상승을 보면 최상위권에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 한 것으로 보인다”며 “영어의 경우 1등급 비율은 작년보다 큰 폭으로 늘었지만 2등급 비율은 비슷하고 3등급 비율은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킬러 문항’(최고난도 문항)의 난이도가 쉬워지고 준킬러 문항에서 변별력을 준 시험인데다 코로나19 때문에 상·중위권 격차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2021학년도 수능 영역별 등급 구분

등급	국어		수학 가형		나형		원점수	영어 절대평가
	표준점수	비율 (%)	표준점수	비율 (%)	표준점수	비율 (%)		
1	131	4.40	130	5.07	131	5.19	90	12.66
2	125	6.92	123	9.26	126	6.34	80	16.48
3	116	13.46	117	8.89	120	12.43	70	19.74
4	108	15.59	109	17.13	108	16.26	60	18.56
5	96	20.90	98	20.08	91	20.00	50	13.54
6	84	17.00	84	16.61	80	17.65	40	8.98
7	73	10.98	70	12.22	75	13.60	30	5.60
8	62	7.11	62	7.68	72	5.01	20	3.44
9	62미만	3.64	62미만	3.06	72미만	3.52	20미만	0.99

자료/한국교육과정평가원



올 수능 결시율 14.7%·재수생 비율 29.9% ‘역대 최고’

지난 3일 치러진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수능 도입 이래 가장 높은 결시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수생 비율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2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올해 수능 결시율은 14.7%로 1994학년도 수능 도입 이래 최고치다. 올해를 제외하고 결시율이 가장 높았던 지난해(11.7%)와 비교해도 3%p 증가했다.

올해는 49만 3433명이 수능 접수를 했지만 실제 수능을 치른 인원은 42만 1034명으로 집계됐다.

입시업계에서는 올해 결시율이 최고치로 나오면서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인원이 예년보다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올해 수능은 재수생 비율도 29.9%로 2005학년도 현 수능 체제 도입 이래 최고치를 보였다. 전체 응시인원 중 12만 5918명이 졸업생 응시자였다.

입시업계는 수능에서 상대적으로 성적이 좋은 졸업생 비율이 늘면서 올해 정시모집에서는 재수생 감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학령인구 감소 여파로 수능 응시인원이 역대 최저로 나타났다. /김대성 기자 bigkim@

‘학벌없는 사회 시민모임’

광주·전남 사립대·법인 11곳 고발

광주 교육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 사회)은 22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광주·전남 사립대·법인 11곳을 고발했다.

학벌없는 사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부가 사립대학에 대해 감사처분을 하고도 고발·수사 의뢰를 병행하지 않는 등 업무 해태를 보여 광주·전남 11개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 관계자들을 사립학교법, 형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법률위반으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내용을 보면 A대학은 수익용 기본재산 감정평가 용역비 등 법인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1억 6200여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했고, B대학은 ‘전문대학법인 협의회비’ 1000여만원과 이사회 경비 155만원 등 1200여만원을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서 집행했다.

학벌없는 사회는 “교육부가 사립대학 감싸주기를 지속할 시 교육부 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



총장로 K-POP 스타 거리 조성공사 22일 광주시 동구 총장로 옛 학생회관 골목에 K-POP 스타 거리 조성공사가 한창이다. 이 일대에 광주시는 지역 출신 아이돌가수인 방탄소년단의 제이홉을 비롯해 동방신기 유노윤호, 미스에이 수지 등의 핸드 프린팅, 벽화 포토존, 히스토리 포토월을 전시해 전국의 팬들이 찾는 핫플레이스로 조성할 예정이다. /최해배 기자choi@kwangju.co.kr

성탄절 눈 올 확률 ‘0’

광주·전남 흐리고 평년 기온

오는 25일 광주·전남지역은 눈 없는 크리스마스 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1일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광주·전남지역은 중국북부지방에서 동진하는 기압골 영향으로 흐린 날씨를, 성탄절인 25일은 구름 낀 날씨를 보이겠으며 눈이 올 확률은 낮다”고 예보했다.

23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4~3도, 낮 최고기온은 10~13도로 전망된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최저기온 0~6도, 최고기온 8~11도 분포를 보이겠으며, 25일은 영하 2도~영상 8도로 평년보다 조금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다. 24일에는 서해남부해상을 중심으로 바람이 차차 강해져, 2~4m의 높은 파도도 예상됨에 따라 시설물 관리에도 주의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광주·전남 미세먼지는 23일까지는 보통 수준으로 유지 될 것으로 보이나, 24일 오후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내일인 23일 밤부터 24일 사이 강한 바람이 부는 탓에 작은 불씨라도 큰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교육청 378명

전남교육청 948명 인사

광주교육청과 전남교육청이 내년 1월 1일자로 각각 지방공무원 378명과 948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인사명단 21면>

광주시교육청의 정기인사 규모는 승진 71명, 전보 237명, 공로연수·정년(명예)퇴직 48명 등 모두 378명이다.

홍양춘 행정국장과 최두섭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의 공로연수로 조미경 총무과장과 이광순 광주중앙도서관장이 3급으로 승진해 각각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으로 보임했다. 김선옥 금호평생교육관장이 행정국장으로, 장문수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이 금호평생교육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4급 승진자는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전문위원 박준수, 감사관 청렴총괄담당 양규현,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교육훈련 과장 한현숙, 행정국 교육시설과장 박남기 등 4명이다.

전남도교육청도 승진 206명, 전보 381명, 공로연수·정년(명예)퇴직 등 290명, 신규임용 71명 등 948명을 인사했다.

3급 목포공공도서관장으로는 황성규 현 목포공공도서관 직무대리를 승진 임용했다.

4급 승진의 경우 김중훈 예산과 예산팀장이 정책기획과 교육협력관에, 이재신 감리담당관 직무대리가 전남안전체험학습분원장으로 각각 임용됐다. 또 김재기 감사관 감사1팀장과 오준현 혁신교육과 농어촌교육지원팀장을 4급으로 승진 임용해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에 파견 발령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6년
1954~2020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2021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www.kwangshin.ac.kr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 열	학 과	모 집 단 위	모 집 인 원
인 문 사 회	신 학 과		15
	한국어교육학과		2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교정평생교육상담학 전공)		3
사 범	유아교육과		3
예 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6
	총 계		29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상담심리지도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2021. 1. 7(목) ~ 11(월)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

입학문의 062)605-1114

www.kwangshin.ac.kr